

■ (언론 동향) 2021.10.19. “농수축산신문” 보도

○ [Issue+] 2021 국정감사-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의원들은 도시 농·축협 무임승차, 사업구조개편 성과 미비, 무기질 비료 구매가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또한 축산 부문에선 축산 지속가능성, 축협 경쟁력 확보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독점적 지위 이용 비료 구매가 결정 비판

농협의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비료 계통구매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국내 무기질 비료 시장의 97%가 농협의 계통구매를 통하고 있어 무기질 비료 업체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납품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 여수갑)은 “농협이 취급하는 무기질 비료 대표 3종의 원가, 구매가, 판매가 자료를 보면 원가보다 무려 10~25% 더 낮은 가격에 구매가가 정해지고 있다”며 “농협이 입찰가의 절대적 하한선을 정해 원가 이하로 구매하는 바람에 비료 생산업체들은 계속해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결국 농협이 원가를 후려쳐서 구매가를 정한 건데, 이는 무기질 비료 시장에서 시장지배자의 지위를 남용하는 등 명백히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장철훈 농협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업인들에게 최저가로 비료를 공급하려다 보니 발생한 일”이라며 “비료 수급안정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앞으로는 업체들의 어려움도 감안해 입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이문예 기자 >